



한가위에 드리는
가 정 예 배



2007년 9월 25일

기 독 교
대한감리회

청 파 교 회

추석 아침 가정 예배 순서

예배초대 ----- 인도자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만나 즐거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 시편136:1-3 ----- 인도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찬 송 ----- 308. 넓은 들에 익은 곡식 ----- 다같이

교독문 ----- 64번 ----- 다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도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회중)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기 도 ----- 말은이

성 경 ----- 신명기 16:13-15 ----- 인도자

당신들은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들일 때 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 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 워해야 합니다. 당신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서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주 당신들 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표준새번역)

설 교 (말씀 묵상) ----- **함께 즐거워하라** ----- 가족중

찬 송 ----- 460. 지금까지 지내 온 것 ----- 다같이

주기도 ----- 다같이

<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

1. 예배 전 기도자와 설교자를 미리 선정합니다.
2. 예배는 가족 중 믿음의 연장자가 인도합니다.
3. 가족 중 세상을 떠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설교 전에 마련합니다. 그분에 대해 인상 깊었던 일들이나 함께 나눌 만한 일화 등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4. 예배 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한 마디씩 나누도록 합니다.

※ 본 순서지는 재생용지를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말씀 묵상

함께 즐거워하라

올해 여름은 비가 참 자주 내렸습니다. 가을 들어서도 자주 왔죠. 논밭을 바라보며 시름 짓는 농부의 얼굴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나가보면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오곡백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신비롭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우리의 추석과 같은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들이며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와 동시에 초막절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 좁고 불편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조상들이 겪었던 40년 동안의 광야생활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흔히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박하고 황량하고 뭐 하나 딱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 등의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특히 우리의 어르신들은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살아오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삶의 뭇을 충실히 감당하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에 대한 감사와 주님께 대한 감사를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감사를 나누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소출을 거두어 가까운 가족들과 먼저 나누라고 하십니다. 눈을 멀리 돌리기 전에 우리 가까운 형제, 동료들의 궁핍함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과 다른 이들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들인, 사회적 약자들과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논밭의 오곡백과 보며 마음이 풍성해지는 이 때,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애쓰고 수고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잊지 않으며 그분들로 인해 받은 감사를 많은 이들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